



대한결핵협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순회 흡연예방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와 중학교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과는 차이가 있는 조기 흡연예방교육을 진행 중이다.

금연교육이 성인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흡연예방교육은 아직 흡연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생동안 담배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교육으로써, 어떤 금연사업 및 정책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임이 명약관화하다. 그것은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는 말 때문이기도 하다.

일회성 교육도 소중하다

흡연예방 교육은 역시 금연강사가 한 학

급에 들어가서 학생들 앞에서 직접 강의하고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협회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 체계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년 초 전문 지도교수에게 담당 금연강사들이 교육기법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고, 최신 금연자료를 보강하여 파워포인트로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등 여러 교육준비를 사전에 마치게 된다.

대상학교 및 교육날짜를 선정하여 직접 교육을 할 때에는 학교 방송실이나 멀티미디어실에서 강사가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각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흡연폐해 실험 등을 진행한다. 각 교실에서는 전교생들이

모니터를 통해 이를 시청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한 번 학교에 가서 방송실에서 하는 1시간의 일회성 교육의 효과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지만, 교육실시 전에 학교 담당교사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 1시간 동안 학급 담임교사가 입실하여 학생들이 정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일 전에 학교를 방문하여 방송실과 장비들을 점검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단 한 번의 교육으로 흡연 학생들이 금방 담배를 끊는다든지, 교육받은 학생들이 평생동안 금연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교육을 통해 금연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또한, 후에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흡연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1시간의 교육을 떠올리며 흡연을 주저하고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현실적인 가운데 효율을 논하자

학교 교실에서 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며 그 모습을 방송반 학생이 디지털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그 장면이 각 교실 모니터로 비쳐지는 강의를 진행할 때, 또렷하고 진지하게 쳐다보아 주는 학생들의 눈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럴 때면, 일회성 교육이더라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며, 한 번의 교육일지라도

교육내용의 새로움과 풍부함, 그리고 강사의 열의와 지도 능력에 따라 그 효과는 전혀 달라짐을 알 수가 있다.

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것과 전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 결국은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쌓이는 것 아닌가? 일회성 교육의 한계와 단점을 쉽게 말하기에 앞서 흡연예방 교육이 가장 현실적인 가운데서 효율을 찾고 있음을 이해했으면 한다.

김영민 의우기 진정한 웰빙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대한결핵협회의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단련된 15명의 금연강사들은 국내 유일의 학생 흡연 예방교육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발로 뛰며 전국을 누비고 있다.

요즘 우리사회는 온통 웰빙문화가 유행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먹는 것은 물론 입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심지어 금융 상품까지도 웰빙을 갖다 붙이고 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자. 진정한 웰빙은 무엇인가? 가장 손쉬우면서 가장 효과적인 웰빙, 이는 곧 돈 들이지 않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행위, 바로 금연이다. 웰빙의 시작인 금연, 웰빙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금연강사들은 진정한 웰빙문화 보급의 선두에 있는 것이 아닌가. 卍